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하는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연구*

강 미 숙¹⁾ 이 승 은²⁾ 송 승 민³⁾ 김 수 지⁴⁾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하는 운영의 어려움을 탐색해보고 가정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대안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가정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연구자 본인과 수도권 H, O시에서 가정어린이집 운영경력 3년 이상 된 원장 6명의 인터뷰 자료를 Saldaña(2009)의 질적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중 대비코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제도로 인한 득과 실’로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무상보육, 평가인증, CCTV, 담임검직에 대한 제도를 먹지도 뱉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갑과 을의 사이에 있는 원장과 부모’로 원장의 입장보다 엄마의 마음으로 보육현장에 있었으나 그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아 상처를 받지만, 격려의 글이나 인사로 마음을 전해주는 부모들로 인해 치유받고 있다고 하였다. 셋째, ‘부익부 빈익빈’으로 운영형태에 따라 공공형 및 영아전담형 가정어린이집은 일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수월한 운영을 하고 있어 선망의 대상이나 공공형 및 영아전담형으로 선정받기 위해 까다로운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선정후에도 해당 지자체의 반복된 지도점검 및 감사로 선정의 선택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상황에 따른 선별적 복지, 표준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담임검직 폐지로 만0-2세들을 안심보육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어린이집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주요어 :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원장, 질적연구, 현상학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2924375).

1)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박사수료

2) 교신저자 :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박사수료 (E-mail: kissingyou76@naver.com)

3) 공동저자 :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4) 공동저자 :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특임교수

I. 서론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영아기의 자녀에게 체계적인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연령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2005년 어린이집 아동 중 만3세~만5세까지의 유아가 64.5%, 만0세~만2세까지의 영아가 30.5%였으며, 2016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연령은 만3세~만5세의 유아가 42%, 만0세~만2세의 영아가 58%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16). 이처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변화는 대상연령이 점점 하향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이용 아동 중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가 845,984명으로 이중 약 39%에 해당하는 328,594명이 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사실로 알 수 있다(통계청, 2016).

정부는 이에 발맞춰 2012년에는 만0-2세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가정어린이집의 양적팽창을 이루게 하였고, 2013년에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정어린이집에 만0-2세의 수요를 감소하게 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어린이집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임명수, 2014). 이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육지원정책과 운영현장간의 상충된 입장으로 인해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배수정, 2012), 부모에게서 받는 보육료가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구조적 문제는 시설운영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시설의 인력감축이나 인건비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정진

순, 2009). 또한 한갑순(2005)의 연구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의 가장 큰 적자의 이유를 정원 미달과 낮은 보육단가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권정선(2009)의 연구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일관성과 계획성의 결여로 인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적 보육욕구를 해결하려고 했고, 이는 팽창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재정 부실로 이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미약한 상태이며, 원아의 수도 최대 20인 이하로 규정(보건복지부, 2017)되어 있어 원아확보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으로 보육재정 부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와 원장의 일을 겸직하면서 소규모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운영에 따른 제반업무인 보육운영의 수립과 평가, 예산의 계획과 집행, 영유아 보육 및 교직원 관리, 지역사회 연계활동 수립과 지역사회 인사와의 교류 등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모숙(2013)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이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영아의 가정과 같은 물리적 환경과 연령 그리고 능력이 다양한 영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족관계와 흡사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특히 가정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용이 편리하여 맞벌이 부모 및 영아의 부모들이 선호하는 보육시설이다(문미숙, 2013).

권경숙과 박지영(2012)은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교직원 채용의 어려움과 함께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 안정적이지 못한 원아 모집과 과중한 역할수행 및 해당 관공서의 지나친 지도점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강모숙(2013) 연구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운영’을 계속해야 할지, 그만 두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법’과 ‘현실’사이에서 취척하기를 망설이고 있었으며, 운영 및 교육지도에 있어 ‘이론’과 ‘현장의 요구’사이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은희(2010)의 연구에서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예산관련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하고 있는 겸직의 업무는 교사 겸직, 조리사 겸직, 차량운행 겸직 순서로 나타났다. 원장의 겸직업무가 많을수록 예산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 대 아동 비율로 인해 영아반의 정원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겸직의 개수가 많아지므로 예산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또한 원장이 겸직하는 업무가 많을수록 교직원 관련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정어린이집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교사의 수급 불균형 현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겸직업무가 적을수록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원장의 겸직업무가 적을수록 학부모 및 교사의 대인관계가 세밀해진 결과로 보여 진다고 보고하였다.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연구 중 무상보육에 관한 임명수

(2014)의 연구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의 과정 없이 진행된 무상보육이 체계적이지 못해 불만을 표현하면서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13년에 도입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영아들이 가정보육으로 돌아서게 되어 만 0-2세를 주 대상으로 보육하고 있던 가정어린이집은 최악의 운영난에 허덕이게 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최경주(2016)의 연구에서도 2012년도에 실시된 영아무상보육으로 원아수가 일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 도입된 양육수당 지급으로 만 0세의 영아수가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줄어들어 어린이집 원장이 체감하는 원아의 수는 변동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도에 실시된 양육수당의 지원으로 인해 원아수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한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처럼 가정어린이집과 관련한 연구들은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및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 원장-어머니 간 관계에 관한 연구, 평가인증 및 무상보육 등 정책에 관련한 연구, 원장의 운영에 관련한 어려움에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양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 보육정책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문제점을 질적연구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재무와 송영선은(2012)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이 확대 시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연구”에서 정책수요자인 영유아를 양육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의 정책 만족도는 높았지만 주요 정책의 관계자인 어린이집 원장의 정책시행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인터뷰를 통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통해 ‘의미 있는 진술’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사회정책과 실제 시행된 정책의 수정과 보완의 의미로 그 동안 양적평가가 주를 이뤘다면 연구자는 질적 평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12년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만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연이어 2013년에는 무상보육 정책과 상반되는 가정 양육수당 지원확대 등과 같은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변화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원장의 견해를 가정어린이집의 운영형태 중 공공형 및 영아전담, 일반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정어린이집 운영과 변화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제시와 함께 정부의 능동적인 대안을 끌어내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자의 선 이해

본 연구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원을 운영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사회복지학의 핵심적인 관점

이 생태계 패러다임의 ‘상황 속의 인간’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 속 개인의 역동적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 보다 적절한 연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Epstein, 1988; 장현순, 2013. 재인용).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 연구자가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원을 운영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살펴보는데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연구자가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시점에는 인가인원 20명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원 13명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가인원이 모두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정과 관련한 어려움이 심각하였으나, 소신껏 운영한 결과, 2016년 하반기에는 20명 인가인원에 대해 정원을 모두 채워서 운영할 수 있었으며, 채정에 관련한 운영은 다소 해소가 되었으나, 맞춤형 보육 및 2018년 최저임금 16.4%의 인상 등이 시행되면서 또다시 가정어린이집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2017년 9월중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발탁되기 위해 위탁심사를 거치게 되었고, 2017년 11월 1일자로 국공립 원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2년 4개월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연구자의 어려움과 함께 H시와 O시의 6명의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인터뷰와 그를 근거할 만한 선행연구들을 수집하여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하는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자는 2011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4년 3개월간 가정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5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년 4개월간 가정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타 보육시설에 비해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만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2년 시행된 무상보육으로 가정어린이집은 양적팽창을 이루게 되고, 2013년도에는 양육수당이 시행되면서 원아의 감소로 인해 정원충족을 하지 못해 운영난에 허덕이거나 폐원까지 이르게 되는 가정어린이집이 속출하게 되었다.

유재언(2015a)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3년 1월엔 가장 높은 88%의 정원 충족을 나타냈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액이 확대되는 2014년부터 2015년에는 84%대의 정원충족률로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낮아 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유재언(2015b)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짧은 기간에 양적으로

급증하고 폐쇄 되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던 시기에 본 연구자가 운영이 가능한 가정어린이집을 2015년 7월에 인수하게 되었다. 만 2세반(1개반-원아 7명), 만 1세반(1개반-원아 5명)으로 담임교사 2명이 있었으며, 가정어린이집 특성상 담임겸직이 가능하나 원아가 없어 그 당시 원장은 담임반이 없었다.

어린이집을 인수받아 대표자 및 원장이 변경이 되면 유지 중이던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어 지자체에서 지급되던 담임교사의 처우개선비가 중단이 되므로 담임교사에게 자비로 수당을 보존해 주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자는 평가인증을 최대한 서둘러야 했으므로 어린이집 인수 이후 평가인증에 집중하였다. 원아는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리사 채용과 함께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환경개선 및 교구마련으로 재정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교사 경력을 제외한 원장 경력 3년 이상으로 사전에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해준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기관유형	운영경력	교사 수	보조교사	취사부	정원/현원
A	가정	17	3	1	1	16/16
B	가정	4	5	1	1	19/19
C	가정	4	4	1	1	20/20
D	가정	6	4	1	1	19/19
E	가정(영아전담)	10	8	0	1	19/19
F	가정(공공형)	8	4	1	1	19/19

본 연구의 연구방법인 현상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현상에 대한 개인들의 경험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하는 것이다. 즉 사물의 자체의 그 본성을 포착하는 것이다(Van Manen, 1990). 연구자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개인들의 경험으로 나타난 경험의 본질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을 전개한다. 이러한 기술이 그들에게 ‘무엇을’ 경험 했는가와 ‘어떻게’ 경험했는지도 구성된다(Moustakas, 1994). 조용환(2010)은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할 경우를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 대상, 지역에 관한 선행연구나 사전지식이 없을 때, 둘째, 복잡하고 미묘한 사회적 관계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관찰하거나 탐구 시, 셋째, 소집단 또는 소규모의 사회적 역동에 관한 국지적이며, 총체적인 연구를 하고자 할 때, 넷째, 사건의 흐름, 맥락, 구조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할 때, 다섯째, 현상 이면에 대한 가치체계, 행위의 규칙, 신념체계, 적용전략 파악이 주목적일 때, 마지막으로 양적, 객관적 연구방법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억압구조와 소수의 집단 목소리를 중시할 때 등이다.

Lincoln과 Guba(1985)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응용한 양적 연구방법은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적절하지 않으며, 총체적인 문화와 그 문화의 행위 주체자들의 행동과 신념 및 태도, 그리고 가치를 구성하는 문화적 요소들을 이해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15년 7월~2017년 10월까지 2년 4개월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했던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의 현상들을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경험을

토대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깊이 있게 풀어내고자 한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자 및 연구자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경험을 다양한 측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경험했던 기억자료에서 출발했으며, 심층인터뷰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6명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개인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내용으로는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경력과 어린이집의 원아 정원수, 교사수로 운영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경험하게 된 다양한 어려움을 자유롭게 현장의 목소리로 담아내고자 하였고, 특히 정책 및 제도,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 더욱 집중하였다. 심층인터뷰 시간은 50분~15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연구 참여자의 어린이집 또는 조용한 카페 등을 이용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음을 한 후 전사하였다. 각 자료는 수집 과정을 거친 다음,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수와 지속적인 토의를 거쳐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현상학적 연구(Giorgi, 2004)는 참여자의 생

활세계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 “사실 있는 그대로”의 그들의 삶을 드러내고 기술하며, 본질과 경험의 의미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자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원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한 자료에 대한 객관성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원장 6명과 심층인터뷰를 통한 자료 분석은 Saldaña(2009)의 기초적 방법(elemental method)과 정의적 방법(affective method)을 참조하여 정의적 방법 중 대비코딩(versus coding)을 선택하였다. 대비코딩(versus coding)이란 개인, 집단, 사회체제, 조직, 현상, 과정에 대하여 이항대립적인 용어(binary terms)를 통해서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코딩방법을 말한다(Saldaña, 2009). 예를 들면, ‘X 또는 Y’, ‘교사들 또는 학교 행정가들’, ‘일 또는 놀이’ 등이 대비코딩의 대표적인 예이다. 대비코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강력한 내분갈등을 표현할 때 적절한 코딩방법이다. 대비코딩에서 대표적으로 생성되는 세 가지의 주요범주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s), 지각(perception), 행위 또는 이슈이다. 특별히 대비코딩은 현상학에서 삶속에 일어나는 딜레마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현상학은 현상의 외현적인 내용보다는 경험하는 당사자들의 주관적 세계에서 구성된 현상에 대해 의미와 본질을 집중적으로 추구한다는 의미로(김서현, 2018)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으로 적절하여 선택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 및 엄격성을 위해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속한 대학의 IRB 심의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전에 본 연구에 대한 내용 및 목적과 자료 수집을 위한 음성 녹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면담을 중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모든 인터뷰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보고서에도 익명으로 처리할 것과 함께 정보제공자의 사적인 상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 해 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위해 공동연구자와의 지속적인 토의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경력이 있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6인으로 구성된 동료들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ing)를 통해 연구자료 및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는데 노력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제도로 인한 득과 실

소규모 보육시설인 가정어린이집은 작은 정책, 제도에도 큰 타격을 입기 마련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 중에서 무상보육과 평가인증, CCTV,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었으며, 특히, 무상보육, 평가인증, CCTV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무상보육’

만 0세~2세를 보육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상 2012년 시행된 무상보육은 가정에서 양육되던 만 0세와 1세를 보육기관으로 나오게 하는 결정적인 정책이 되었으며, 차미연(2014)의 연구에서 부모들은 무상보육으로 인해 교육기관에 입소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처럼 무상보육은 가정어린이집이 양적으로 팽창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하였으나,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던 차등 보육제와 달리 보편적 복지로 만 0세~2세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 후로 가정어린이집의 위상과 교사 및 원장에 대한 위상이 낮아졌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떠밀려오든, 본인의 선택의 의해서 오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아이가 있어야지 운영이 되는 부분이니까....만약에 무상보육이 아니라면 부모들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서 어린이집에 과연....아빠 월급에서 보육료까지 지불을 해가면서 뭐, 가정에 있는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보낼까? 그런 생각도 들고....그나마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안

보내면 손해라는 그런 기분 때문이라도 어린이집에 오고 있지 않나...

<E원장과의 면담>

자기 돈 몇 십만 원 줄때도 원장님한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도 말 못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자기돈 10원도 안주면서 더 당당한 거예요. 나랏돈 먹었다는 거지...너 까딱하면 나라에다가 신고 할 거야 뭐 이 원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C원장과의 면담>

무상보육이 되니까 엄마들이 생각하는...그 어린이집에 대한 생각이 조금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그렇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원장들은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원아모집이 잘 안되니까 양육수당을 주면 내가 돈을 받는 거니까 굳이 내가 안벌어도 그만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원아가 안차니까 아이를 받으려고 절절대는 어린이집이 점점 많아지고 큰소리 치는 엄마들이...갑, 갑, 그런거죠. 부모님이 갑인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F원장과의 면담>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평가인증’

서용례(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보육환경 개선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이 되고, 교사의 업무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화 되었다고 평가인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하였으며, 가정어린이집 원장들도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평가인증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이라면 대부분 치러내야 하는 평가인증에 대해 본인의 철학과 신념이 상충될 때, 보육현장에서 지켜내기 어려운 지표들과 마주할 때 더욱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경력 17년차인 A원장은 평가인증 준비로 원아들에게 소홀하고 싶지 않고,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고 싶지 않아 교사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원장 또한 위선적인 방법을 사용치 않아 정정당당하게 치러냈으나,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한 정보공시로 인해 부모들의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를 보고 저평가 하게 될 인식과 함께 영아전담 어린이집 선정 등에서 평가인증 점수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녀서 힘들어 하고 있었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에 따르면 평가인증 점수가 3차 통합지표인 경우 A등급, 2차 지표 및 3차 시범지표인 경우 90점 이상이어야 하며(공공형 업무매뉴얼, 2018), ‘O’시의 영아전담 선정기준 표에 따르면, 영아전담 어린이집 선정기준 또한 평가인증 점수가 2차 지표는 90점, 3차 지표는 85점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교사들도 집에 가서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개인적인 일이 많은데 평가인증을 해보다시피 몇날며칠 밤도 새야하고, 토요일도 일해야 되고 ..(중략) H시에서는 창의지성형도 있고, 열린어린이집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려다보면 평가인증 점수가 들어가요. 또 영아전담 어린이집. 그것도. 그것도 평가인증 점수가

들어가는데 그럴 때는 욕심이 생겨서 선생님들을 힘들게 쫓아서 나도 100점을 맞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들어요. 그리고 평가인증을 위해 교구를 옆집 것을 빌려온다든지...(중략) 환경이나 그런 거는 업그레이드 돼서 다 좋아진 것 같아요...(중략) 평가인증 제도가 생기면서 원마다 밝아지고, 애들도 밝아지고, 교사도 밝아지고,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A원장과의 면담>

아무래도 현실하고 맞지 않는 지표들이죠. 예를 들면, 빈 공간에 아이들은 놔두지 말라하고, 코 닦은 아이들은 꼭 가서(화장실)꼭 씻어야 한다. 그럼 그 나머지 애들은 누가 봐줄 거예요. 여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F원장과의 면담>

나를 감시하는 ‘CCTV’와 나를 보호해주는 ‘CCTV’

2015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인천의 김치폭행 사건’ 어린이집 교사가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4세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2015년은 본 연구자가 어린이집을 인수받아 운영하던 첫 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였다. CCTV 설치로 인해 많은 교사들과 원장들은 범죄예정자

로 낙인찍는 세상과 불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부모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보육현장을 많이 떠나기도 하였다. 아이가 조금만 다치는 일이 있거나 하원 후 아이의 입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들은 부모들은 CCTV를 보고 싶어 했다.

한정신(2016)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보육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모들의 오해가 생겼을 때 CCTV의 사실적인 근거를 통해 오해를 풀기도 하였으며 교사와 부모 간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들도 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부모가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되는 게 어린이집의 입장인지라...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걸쳐야 하고 이런 제도적 인건 있지만..어머님이 원하시면 아무래도 작은 기관에서는 큰일을 만들기 싫어서 보여주죠. 우리 아이가 의심이 되요, 나 CCTV 보여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불과 얼마 전에. 그래서 CCTV를 확인했는데 학대라던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잘 지내는군요”하고 갔어요. (썩썩한 웃음)

<F원장과의 면담>

오전 당직선생님은 아침에 등원할 때부터 상처가 있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아빠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올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빠는 CCTV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그렇게 함부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다른 어머님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는 거고...일단은 제가 한번 보겠다고, 보고나서 아버님이 CCTV 볼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 놓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 상황도 없었고 다칠만한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아서...(중략)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 다혈질이라서(아버님) 그런 것 같다고, 자기 애들 아빠 그 성질 맞춰주느라고 자기도 그런거지. 아무일 없었던 거 자기는 믿는다고. 그래서 CCTV보고 싶으시면 운영위원회 열어서 보여드릴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빠도 알겠다고..다행히 뭐 그러서가지고 CCTV를 오픈하지 않았지만 CCTV가 없었다면....

<E원장과의 면담>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담임검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교사 검직 원장에 대해 운영상 필요하나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제도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었다.

원장님이 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류도 해야 되고,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같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이 반, 저반 교사들이 담임이 있다고 하더라

도 관심도 가져줘야 되고, 그러다보니 담임을 맡고 있는 거는...좀 어려움이 있고, 부모도 마이너스고 아이도 마이너스고 원도 마이너스고, 저도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들어오니깐.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 그렇지 않으면 원장 급여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깐.

<A원장과의 면담>

시청 관련 서류라던지 교직원 관리라던지. 거기다 담임도 맡고 있으니까...

(중략) 어린이집 원장님은 소사잖아요. 소사(웃음) 만능 엔터테이너. 보조 선생님 도움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요. 생각해 본건데, 보조교사가 있을 것이 아니라 원장을 담임에서 빼주고 보조적인 역할을 원장님도 할 수 있잖아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 받을 뻔 수 있으면 이 반도 가서 도와줄 수 있고...원장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훨씬 좋지 않을까...

<F원장과의 면담>

2. '갑'과 '을'의 사이에 있는 원장과 부모

이보람(2017)의 연구에서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자신의 자녀에게만 관심을 쏟아달라고 지나치게 요구를 하거나, 자녀를 맡긴 후 연락 없이 늦게까지 아이를 데려가지 않을 때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원장도 인

터뷰에서 원장과 부모의 사이를 '갑 같은 을'과 '을 같은 갑'으로 표현하였는데,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은 갑처럼 보이지만 사실 을의 입장이라는 말에 연구자 본인도 격하게 공감이 되었다. 원장과 부모의 사이를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원장이 정원을 충족하려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으나, 원장이기 전에 내 아이의 엄마였던 사람이기에 맞벌이의 고단함을 스스로 헤아려 자신의 자녀들이 아니어도 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보육을 하고 있었다. 부모에게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원장이 베푸는 마음 씀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한다고 하였다.

엄마들의 아픔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돈 10원도 안 받고, 10시에 오면 10시에 보내고, 9시에 오면 9시에 보내고...저녁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10시 30분에 가는 엄마가 있었는데...이 얘기는 정말 사담인데..앞에 있을 때는 정말 이런 원장님 없어, 복 받으실 거예요. 돈을 받지도 않고 야간 수당을 받지도 않고...(중략) 2월에 졸업하면서..몇 달뒤에 스승의 날이 잿어요. 전화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저 바라지 않아요. 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가까이 살잖아요(중략) '원장님, 스승의 날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건가...나 허망하다...내 새끼처럼 키워놨는데...

<A원장과의 면담>

“어머님~혹시 퇴근전이신가요? 8시가 다되어 가는데 아직 안 오셔서요. 00이도 배고프고 졸린 것 같구요”

“지금 갈 거예요. 00이 오빠가 학습지 하는 날이라서 학습지 끝나고 가려구요”

“어머님~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저녁 7시 30분까지구요. 일단은 00이가 어린이집에 혼자서 늦게까지 남아 있어서 힘들어 하고, 저도 퇴근해서 챙겨야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해요”

<연구자의 기억자료- 2015년 12월>

소중한 ‘내 아이’와 더 소중한 ‘부모’

저 출산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전선균, 이대균, 2014) 그러한 관심은 때론 ‘내 아이만’, ‘나만’ 이라는 이기심으로 다가와 내 자녀의 소중한 친구와 그의 부모를 비롯하여 담임교사, 원장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도 하였다. 주 양육자로서의 부모역할은 다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지나친 요구를 해오는 부모들이 많아 원장들은 어린이집이 보·교육기관이 아닌 부모들의 요구에 맞춰 자녀들을 돌봐주는 신세로 전락한 것만 같아 회의감을 갖고 있었다.

견학 가는 금요일 날. 10시에 가야되는데 10시 5분전에 와가지고 자기 견학 안 간대. 우리 애들은 원에서 봐 달래. 너무 황당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견학을 취소하고 못 갔어요. 그러다가 가을엔가 견학 갈 땐 세게 나갔지.. 견학 간다, 안 간다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안하

고 오늘까지 고민했는데 못 보내겠대. 그때 또 전화가 왔어. 다른 엄마들도. 찐거지 돌이. 그래서 안된다고 했더니 다른 엄마가 울면서 전화온거야. 자기 힘들대. 자기 애 못본대..(한숨)...그래서 통신문에도 나갔지 않느냐~ 안된다고 하니 평평 울고 난리가 난거예요. 자기 애만 봐달래. 비밀로 할테니까.(썩썩한 웃음). 그래서 못한다고 했더니 쌍둥이 아빠가 전화왔어. 자기 마누라 힘드네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 시키면 다 하는 거 아니냐고.(한숨)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고. 다른 학부모는....

<C원장과의 면담>

“어저께 애 데려갈 때 담임이 다른 애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에 가서 피곤해 하면 일찍 재우고 그러던데.. 그런데 그저께도 우리애가 잠을 못 잤다고 그러고...우리애가 피곤한지 집에 와서 엄청 힘들어 해요”

“네. 아버지님...지금 **반 친구들 모두가 적응중이라서 다소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낮잠을 길게 들지 못하고 10~20분 만에 일어나기도 해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00이가 친구가 일찍 일어나 우는 바람에 잠을 설쳤어요”

“아니, 그러면 이틀이나 그랬으면 자다가 우는 애가 있으면, 따로 재울 생각은 왜 못해? 선생들은 그만한 생각을 못하냐? 아니, 왜 우리애만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는 거냐구”

“아버님~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반

친구들 모두가 적응중에 있어요. 어제, 그제는 친구 때문에 00이가 잠을 설쳤지만, 그 전에는 00이가 자다 깨서 친구들이 잠을 설쳤어요. 그럼 그때도 우는 00이를 다른 친구들 자야 하니까 담임이 없는 교실에 분리해야 하나요? **반 친구들이 이번 주 부터는 원에서 낮잠을 자는 적응 중에 있고 이 또한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충분히 성공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예요. 00이가 잠을 설쳐 속상하시더라도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00이가 해내고 있는 적응과정을 격려해 주시면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거라 생각이 들어요”

<연구자의 기억자료- 2017년 4월>

병도 주고 약도 주는 ‘부모’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부모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을 땐 원아모집이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 어린이집 존폐의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에도 이르게 된다. H시에서 어린이집을 인수하게 된 B원장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새로 오게 되는 원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를 회상하며 힘들어 하였는데 그중, 한 원아의 증조모님이 원장의 손을 꼭 잡아주며 “축하 드립니다”라는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고 기억하면서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부모에게서 치유받기도 한다고 하면서 원을 운영하면서 힘이 되어준 부모들을 회상하기도 하였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구구 절절히 편지

써가지고 ‘감사하다’고 위로의 편지를 받고...어떻게 원장님은 아이도 없는데 아이들을 이해하고 양육할 수 있느냐고 그런 말도 많이 해주시고,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해 주고 돌봐 줄 수가 있냐고...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셔요.

<B원장과의 면담>

첫 해에 오픈을 했을 때 입소한 아이였는데 그때에도 어머니께서 굉장히 살뜰하게 격려의 말도 해주시고, 스승의 날에는 포스트잇 메모지에다가 저에게만 별도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시는 최고의 원장님’이라고 편지를 써서 주셨을 때 되게 감동 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는데도 동생이 새로 생겨가지고 저희 원에 같이 방문해 주시고 늘 항상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D원장과의 만남>

원장님! 우리 애가 낮을 많이 타서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주변에 엄마들이 좋다고 해서 반신반의하고 보냈는데...애가 어린이집 가방 메고 주말에도 현관 앞에 서있어요. 어린이집 가고 싶어서..너무 감사해요. 저두 우리애가 힘들어서 주말이 오는 게 힘든데 우리 애 보면 원장님이 어떻게 하루를 지내실지 보여요. 항상 감사해요.

<연구자의 기억자료- 2016년 5월>

3. 부익부 빈익빈- ‘가정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란, 개인이나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곳으로 ‘일반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구분되어진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어린이이며,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일반형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 등과 같은 이유로 ‘공공형 어린이집’과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었으나 평가인증 점수 또는 운영성과 등에 따른 선정기준과 선정 후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까다로운 지도점검 및 감사로 인해 ‘공공형 어린이집’과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선정에서 딜레마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운영상 경험하는 어려움 중 영아들이 다쳤을 때 부모와의 관계를 매우 힘들어 하였으며 원만히 해결되지 못했을 때 원아모집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H’시에서 일반형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7년 4월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E원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일반형 가정어린이집보다 낮아 영아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다툼으로 인한 사

건 또는 사고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여 일반형 가정어린이집 운영할 때와 비교하여 수월함을 느끼고 있었다. 참고로 일반형 가정어린이집과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형 가정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만0세반은 1:3, 만1세반은 1:5, 만2세반은 1:7인 것에 비해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만0세반이 1:2, 만1세반이 1:3, 만2세반이 1:4로 일반형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7).

저희는 지금 물고 때리고 이런 친구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뺏는 친구는 있어요. 근데 물고 때리고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는 친구는...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가 교사가 충분한 상호작용이 되니까... 교사 대 아동비율이 적다보니까 상황이 다 교사 눈에 한눈에 보이니까.

<E원장과의 면담>

선생님이 다섯명 케어하다 보면 이 친구만 보는게 아니고 옆 친구도 보고, 다른 친구도 보고, 화장실도 다녀오는 상황에서 유난히 무는 애들, 또는 까탈한 엄마들... 둘 중에 하나를 데려가요. 화장실에 간다던가 할 때. 그때 잠깐 0.0001초 때문에 물리거나 그랬을 때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음 아무래도 영아전담이 생겼잖아요. 주위 원장님들한테 교사들 분위기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 1:2, 1:3 이

러니까 화목하게, 싸울 일도 없고,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낸다고 자랑삼아 얘기도 하시더라구요.

<A원장과의 면담>

공공형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교사 채용 시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산정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 공표된 전국보육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시설 유형에 따른 급여를 살펴본 결과,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총액이 직장시설은 218만원, 국공립 시설은 210만원, 가정은 150만원으로 나타나 현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O’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F원장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과 국공립 1호봉의 급여 차액을 지원받고 있어 교사 채용 시 일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좀 더 능력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으며, ‘O’시에서는 보조교사와 조리사중에서 택일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을수 있으나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조교사와 조리사 인건비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어 ‘일반형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했을 때 보다 수월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저는 2017년 1월에 공공형에 선정됐어요. 공공형이 되고나서 급여부분이 그래도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올라가잖아요.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지원자들이 좀 다양해 지더라구요. 조금 큰데서 일하셨던 분들도 지원을 하게 되고...

(중략)

제가 총 보육 경력이 16년인가 그래요. 그 16년을 환산을 하면 급여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일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 경력 비례해서 월급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여를 그렇게 뺄 수 있는 손익분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공공형에 들어가고 나니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취사부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고요. 반별 인건비도 아주 조금이지만 지원이 되고, 운영비도 조금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힘들어도 월급을 못 가져가면서 힘든거는 죽을 정도로 힘들지만 월급을 가져가면서 힘든거는 그나마 조금 버틸 수가 있거든요.

<F원장과의 면담>

IV. 논의 및 결론

가정어린이집은 부모 및 영아의 가정과 근 거리에 위치 해 있고, 가정과 유사한 물리적 환경으로 영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육 교사의 인적환경과 함께 안전과 영양, 건강 등의 질 높은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를 부모 및 영아에게 제공하는 것이(문미숙, 2013) 장 점인 보육시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원을 운영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어린이집

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로 인한 어려움과, 어린이집 운영과 직결되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어린이집 운영형태에 따른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또한 연구 참여자들과 같은 어려움을 2년 4개월간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원을 운영하면서 경험하게 되었다. 2012년 실시된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으로 잠시 핑크빛 세상이 펼쳐진 듯하였으나, 2013년 양육수당 정책이 도입되어 어린이집이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중 가장 소규모 시설인 가정어린이집은 존폐의 기로에서 원장들을 매일 고민하게 하였다. 2015년 전국을 들쭉이게 했던 인천의 모 어린이집에서의 김치폭행 사건으로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운영을 포기하는 원장, 보육현장을 떠나는 교사들이 속출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보육료는 인상되지 않으면서 매년 1월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원장들로 하여금 12월은 보내고 싶지 않은 간절함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6명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며,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원을 운영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제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가정에서만 있던 만0~2세의 영아들이 어린이집으로 나오게 되어 가정어린이집이 양적팽창을 이루게 된 계기가 되었으나, 그로인해 교사 및 원장,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낮아졌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상보육 정책의 장·단점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보고한

임명수(2014)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상보육으로 일시적인 보육수요가 증가되어 어린이집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보육의 질적인 수준에 문제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지원정책은 필요하나, 체계적으로 준비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평가인증 또한 ‘평가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육의 질 및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원장들은 평가인증의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보육현장과 맞지 않는 평가인증 지표와 원장의 신념이나 철학이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상충될 때 많이 고민스러워 했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옥(2014)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그 내용으로는 평가인증참여 후 개선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시설 개선 및 교사의 전문성은 긍정적 변화로 보고하면서, 부모들의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건강주의의제는 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표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CCTV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보육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모들의 오해를 CCTV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임과 동시에 교사와 부모 간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지미예(2017)의 연구에서도 CCTV로 인한 긍정적 측면에 대해 언어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CCTV의 영상을 통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교사가 영유아에게 상호작용 시 영유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보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정적 측면으로는 영유아 및

교사의 인권과 권리 침해와 함께 CCTV 설치 이후 오해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관찰중심의 보육으로 보육의 질 저하를 지적하였다. 가정어린이집만의 특성인 담임검직에 대해서도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인건비 절감이라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원장의 업무와 담임검직으로 인해 해당 반 영아들에게 소홀하게 보육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반별 인건비 지원 또는 표준보육료 인상 등으로 타 보육시설처럼 가정어린이집 원장도 담임 검직을 하지 않아야 함을 강하게 주장 하였다. 이지영·김현주(2016)의 연구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이나, 원장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부모와의 관계는 곧 원아모집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본 연구자를 비롯하여 연구 참여자 6명 전원이 부모와의 관계를 힘들어 하고 있었다. 나의 아이만을 좀 더 소중하고 특별하게 신경 써 달라는 부모들의 이기심과 부모들이 주 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을 어린이집에 의존하거나,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쳤을 땐 보모를 꾸짖듯이 담임교사와 원장을 혼계하는 부모들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심리적인 소진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장의 노고와 교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적은 짧은 메모와 등하원시 표현해주는 칭찬 한마디로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큰 격려를 받는다고 하였다. 전선균·이대균(2014)의 연구에서도 저 출산으로 인해 부모가 갖는 자녀의 관심은 빠르게 증가함과 동시에 가정어린이집

은 타 보육시설에 비해 자녀를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여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만을 귀하게 여기는 이기심과 교사에게 갖는 불신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으며, 부모들이 긍정적인 양육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었다.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은 부모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교사의 진심어린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와 지지를 표현을 해줄 때 자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어린이집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안에는 일반형 가정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운영의 성격이 다른 가정어린이집이 존재한다. 일반형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공공형 어린이집과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과 보조인력 지원 및 운영비 지원에 있어 일반형 어린이집보다 운영면에서 훨씬 수월함을 이야기 하고 있었으며, 일반형 어린이집 원장들 또한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공공형 어린이집 및 영아전담 어린이집 선정 시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함께 선정된 후에는 해당 관공서에서 진행되는 지도점검이나 감사로 인해 공공형 어린이집과 영아전담 어린이집 선정에 관한 선택에서 진퇴양난을 경험하고 있었다. 김현숙(2013)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일반형 가정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 후에 자긍심 상승과 함께 우수한 보육교사 수급 및 전문성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업무의 과중과 관련기관의 감사로 인한 압박감을 토로하였다.

이처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충

분한 이해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해본다.

첫째,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부모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로 보육이 꼭 필요한 부모에게 보육이 이뤄져 부모-교사-원장 간의 관계가 서로 존중받는 사이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현재 영아반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제도보다는 반별 인건비 지원 또는 표준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담임 겸직하지 않음으로 안전한 보육 환경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둘째, 가정어린이집에 맞벌이 등의 이유로 자녀를 맡기는 부모와 원장의 관계개선 및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의 힘들고 버거운 일을 대신해주는 곳이 아닌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와 가정어린이집은 자녀양육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양육기관으로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부모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 지면교육과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부모교육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부모교육의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인건비 지원 및 운영비 지원을 받는 공공형 어린이집 및 영아전담 어린이집이란 제도도 좋지만,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만0~2세의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된다. 따라서 현재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여 교사도 아동도 안심보육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어린이집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그간 연구되어온 질적 연구나 질적 평가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규범적이거나 객관적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곤 해왔다. 현 시

점에서 구체적인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경험적 연구와 평가가 축적되어 한국사회의 정책기안에서 시행까지의 질적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가 수도권의 H시, O시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이뤄지는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지역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며, 실제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휴원 또는 폐원한 원장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모숙 (2013).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경험: 운영의 어려움과 극복.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경숙, 박지영 (2012).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어린이집 운영 과정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1-27.
- 권정선 (2009). 우리나라 보육재정 지원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부천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서현 (2018). 남성 독거노인의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본질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25(3), 1-35.
- 김은희 (2010).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이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숙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을 경험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이야기.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미숙 (2013).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 (2017). 보육사업안내(2017). 보건복지부.
- 서용례 (2010). 셋별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보람 (2017).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소진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옥 (2014). 2차 평가인증에 참여한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2차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 연구: 대전광역시 서구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영, 김현주 (2016).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하는 다면적 겸직 업무수행의 의미. 한국교육문제연구, 34(1), 45-67.
- 이재무, 송영선 (2012).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의 확대 시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2, 379-399.
- 임명수 (2014). 만 0-2세 무상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가정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수정 (2012).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보람과 어려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현순 (2013).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돌보는 노모의 경험과 노후 삶에 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선균, 이대균 (2014).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어려움과 보람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1), 253-282.
- 정진순 (2009). 가정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지미예 (2017).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느끼는 CCTV 설치 의무화의 의미 탐색: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용환 (2010). 왜 질적연구인가? 한국상담심리학회 교육연수위원회 동계학술연구자료집, 3-23.
- 차미연 (2014). 무상보육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원장과 부모의 인식비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경주 (2016). 영아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만족도 및 요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17.10). 연령별 보육아동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mode=tab&orgId=117&tblId=DT_15407_NN005&vw_cd=&list_id=154_1540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18년 2월 14일 인출.
- 한갑순 (2005). 가정보육시설의 경영실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정신 (2016). 보육시설의 CCTV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
- Saldaña, J. (2009).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Sage Publications Ltd.
- Giorgi A,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김미영, 정승은 공역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서울: 현문사.(원본 1970년에 출판).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질적 연구 방법론 - 다섯가지 접근 - (원본 발간일, 2015).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New York: Th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질적 연구 방법론 - 다섯가지 접근 - (원본 발간일, 2015).
- 1 차원고접수 : 2019.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9. 09. 02.
최종게재결정 : 2019. 09. 18.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Home Day Care Center Directors

Kang, Mi-Sook

Lee, Seung-Eun

Song, Seung-Min

Kim, Soo-Jee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Su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perational difficulties that home daycare center directors experience, and to suggest preliminary data for new childcare policies. This study analyzed semi-structured interview data with 6 directors including my experience in operating home daycare center in capital area H and O-si using comparison of coding by Saldaña(2009) for analyzing qualitative data. First, directors of home daycare center recognized the system of free childcare, appraisal authentication, CCTV, and teachers holding other jobs as a hot potato that cannot be eaten or spit out. Secondly, directors stated that they were at the nursery with their mother's heart rather than the director's, but were hurt by the unthinkable, but were healed by parents who delivered their hearts with words of encouragement or greetings Thirdly, public home daycare center and daycare center exclusive for infants are the object of envy but strict standards to get selected as public daycare center and daycare center exclusive for infants exist. There is a dilemma even after the selection by repeated inspection and checking by government. Through this study, better understanding about home daycare teachers' and directors' difficulties is promoted and it would contribute to solve substantive issues about these centers.

Keywords: Home daycare center, Home daycare center director, qualitative study, phenomenology